

조경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이명준* · 김정화** · 서영애*
*기술사사무소 이수 · **에든버러대학교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19년은 탑골공원에서 3.1만세 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기가 되는 해이다. 최근 효창공원을 독립운동기념공원으로 재조성하려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한겨레, 2018). 지난 7월에는 광화문 광장의 재조성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열렸고, 현상공모를 통해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계획이며(서울시, 2018), 2016년에는 한국은행 앞 분수 광장의 리뉴얼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리기도 했다. 근대에 조성된 조경 공간부터 만들어진지 10년도 안된 공간에 이르기까지 재조성 논의가 있을 때마다 그 변화에 대한 기록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누가 관리하고 있는가? 궁금증이 생긴다. 사업 주체나 연구자, 일반 시민이 접근해서 조경 공간에 대한 기록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아카이브는 현재 없다.

‘아카이브(archive)’는 “어떤 장소, 기관, 혹은 집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사적 자료와 기록물의 컬렉션(collection)”을 뜻하고, 그러한 “자료와 기록의 소장처를 의미하기도 한다(English Oxford Living Dictionaries).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은 기관의 목적 자체가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일종의 아카이브이며, 그동안 자신들이 축적한 많은 양의 기록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를 계속해서 진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록물의 수집과 보관이 주요 목적이 아닌 기관에서도 보유 자료의 관리와 보존, 기관 홍보를 위해 흥미로운 주제와 분류 체계를 만들어 아카이브를 구축해가고 있다. 바꿔 말하자면, 기관이 있으면 아카이브도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성격의 아카이브가 구축되고 있다.

영미권의 조경과 건축계에서는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 건축 분야에서 아카이브 구축이 이루어져 오고 있을 뿐, 조경계의 아카이브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에 공원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체계를 제안하는 연구(최은실, 2014)가 이루어진 바 있다. 최은실의 연구는 공원 조성의 초기 과정부터 조성 이후의 이용까지 아우르는 전반적인 프로세스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다양한 성격의 조경 프로젝트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라 보기는 힘들

다. 또한, 지금부터 시작될 공원 조성 프로젝트의 아카이브 구축에 초점이 맞춰진 결과라, 이미 조성되어 이용되고 있고 때로는 사라져 버렸지만 기억할 필요가 있는 조경공간의 아카이브 구축 방법과 체계에 대한 고민을 찾기 힘들다.

이 연구는 국내 조경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국내외 조경 및 인접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카이브의 동향을 파악하여 조경 분야에 적합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조경과 인접 분야 아카이브 구축 동향

1. 국내 동향

국내에는 조경 아카이브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건축 아카이브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축되고 있다. 초기에 정부출연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가 선행되어(유광희 외, 2009) 건축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필요성, 기본 방향 등 담론을 생산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립현대미술관, 목천건축아카이브, 김중업건축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 등에서 아카이브가 구축되어 있으며, 향후 광주시에서 근대 건축물 디지털 아카이브를,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에서 도시건축박물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중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는 도서관·아카이브·박물관의 기능을 융합한 ‘라키비움(Larchiveum)’ 개념을 적용하여, 아카이브를 경험하는 다양한 장치들을 만들어 대중과의 소통을 지향하고 있다(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

이처럼 건축 아카이브의 역사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카이브의 구축의 당위성의 담론 생산과 같은 초기 단계를 넘어 지속가능성과 같은 진전된 논의를 하고 있다. 2015년 건축 전문지 『공간(Space)』에서 마련된 특집에서 여러 논자의 공통된 견해로 첫째, 건축 아카이브의 주제와 수집 대상이 보다 차별화되어 개별 기관이 아이덴티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최원준 2015; 김인혜 외 2015). 둘째, 건축 아카이브 간의 협력과 네트워킹이 필수적이라는 것도 공통된 견해였다(최원준, 2015; 김인혜 외 2015). 각자의 아카이브가 지닌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 기관에서 비슷한 주제와 범위의 아카이

브를 진행하여 서로 아카이브 내용이 겹치는 경우를 피하자는 의도이다. 이외에도,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어 건축 아카이브의 개념 자체가 전환되고 있다는 진단도 주목할 만하다(Zalduendo, 2015). 디지털로 생산되는 건축 도면에는 원본의 유일함이 없기 때문에 도면 이외의 추가 자료, 예컨대 주변 환경과 맥락, 행정적 내용 등의 데이터를 함께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디지털 도면을 파일로 만들어 수집, 기술, 관리, 보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도 계속되어야 한다.

2. 해외 동향

1) 미국

미국에서는 조경과 건축 관련 비영리단체,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 등에서 폭 넓게 아카이브 구축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학술 기관인 Dumbarton Oaks의 'Garden Archives'이다. 1950년 이 곳의 정원을 설계한 Beatrix Farrand의 자료 기증을 시작으로 컬렉션이 구축되었으며, 비교적 최근인 2009년부터 추진된 Garden Archives라는 프로젝트에 의해 자료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Dumbarton Oaks Garden Archives). 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과 달리 다른 단체들은 대중을 독자로 설정한 아카이브를 만들고 있다. 1998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 The Cultural Landscape Foundation는 대중과 경관 유산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경관 유산을 저장하고 기록하는 3가지 핵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장소 아카이브 구축이 곧 미션인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북아메리카 문화경관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What's Out There,' 896명의 주요 조경가와 교육자를 소개하고, Lawrence Halprin과 같은 선구자들의 삶을 구술 채록한 멀티미디어 도서관 'Pioneers of American Landscape Design,' 위험에 처한 중요 경관에 대한 지속적인 수집인 'Landslide'가 있다(The Cultural Landscape Foundation).

아카이브 구축은 최근 들어 더 세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버지니아대학교 건축대학은 유네스코의 보존에 대한 인식 변화에 발맞춰 문화경관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실천하기 위해 2015년 Center for Cultural Landscapes를 설립했는데, 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역시 지역 자원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아카이브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문화경관 재단과 파트너십으로 진행되는 '왓츠아웃데어' 프로젝트를 비롯해, 버지니아 지역의 지도와 사진과 같은 1차 문헌을 아카이브로 구축하고 제공하는 'CCL Research Database,' 버지니아 지역의 문화경관을 지도로 제작하는 'Cultural Landscape Atlas' 등이다(Center for Cultural Landscapes).

Society of Architectural Historians와 같은 학술단체도 'Future of the Past'라는 모금 운동을 기반으로 'SAH Archipedia'라는

미국 건축사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다. 2010년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와 Graham Foundation 등의 지원으로 시작된 아카이브는 지속적인 미국립인문학재단의 재정 지원과 협회의 모금 마련 캠페인을 통해 급격히 성장했다. 불과 10개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던 아카이브는 2012년 8,500개의 건축물로 콘텐츠 규모를 확장했고, 2013년에는 경관의 역사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였다. 2018년 현재 19,000개 이상의 구조물과 장소에 대한 역사, 사진, 지도 등의 자료를 구축해 놓은 상태로, 향후 오픈엑세스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SAH Archipedia).

이밖에도 최근 미의회도서관이 2022년 프레더릭 로 옴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약 24,000개의 옴스테드 자료를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이미 National Park Service가 1839년부터 1980년까지 5,000건 이상의 디자인 프로젝트 자료를 포함한 옴스테드 아카이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번에 미의회도서관이 공개한 자료는 일기와 서신, 제안서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Frederick Law Olmsted Papers).

2) 유럽

유럽의 정원 및 조경 아카이브 역사는 깊다. 대체로 관련 비영리단체나 재단들의 사업 중 하나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조경 교육·연구·실천 간 연계를 지향하는 협회인 LE:NOTRE Institute는 회원들이 직접 입력한 정보와 자료를 기반으로 한 인물, 조직, 주제, 유형, 장소 검색 'Web Platform'을 운영하고 있으며(LE:NOTRE Institute), 이탈리아의 Fondazione Alessandro Tagliolini이나 Grandi Giardini Italiani에서도 이탈리아와 일대의 주요 정원에 관한 아카이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Fondazione Alessandro Tagliolini: Grandi Giardini Italiani).

영국의 경우, 1929년에 창립된 Landscape Institute가 학술적 이용을 위해 1990년대에 주요 조경가 컬렉션을 갖춘 Landscape Institute Archive and Library를 설립했는데, 최근 Garden Museum과 The Gardens Trust 등과 협업하며 대중에게 조경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는 허브 아카이브로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Landscape Institute).

영국의 대표적인 조경 아카이브는 1984년에 창립된 English Heritage에 의해 형성되었다. 잉글리시헤리티지는 아카이브가 정원과 공원의 역사를 사회문화 맥락 속에서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무관심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데 기여한다고 판단하고(English Heritage, 2014), 2005년 Parks and Gardens UK 재단 등에 재정 지원을 통해 시대, 유형, 맥락, 활용 방법, 식재 유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 검색이 가능한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현재 잉글리시헤리티지에서 분리된 조

직인 Historic England가 이를 포함해 유산 보호와 함께 건축물 및 문화재에 관한 백만 개 이상의 사진과 문서 검색을 제공하는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아카이브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하고, 향후 웹사이트 개선, 도시공원과 녹지에 관한 정보 추가, 컬렉션 규모 확장 등 정원과 조경 분야의 첫 번째 아카이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아카이브 구축에 지자체와 트러스트 등의 유사 기관이 자료 조사와 구축에 앞장 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English Heritage, 2014).

III. 조경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

1. 조경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과 고려 사항

인접분야와 해외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아카이브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카이브는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는 과거와 현재의 기록이다. 조경이 다루는 경관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기에 꾸준한 기록을 필요로 한다. 둘째, 아카이브는 대중이 조경의 가치와 역할을 인식하고, 장소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소통과 교육의 공간이다.

조경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점은 대상과 범위 설정이다. 조경의 대상인 공원, 정원, 광장을 포함한 공공 공간 등으로 대상을 분류하고, 시대적, 내용적인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예컨대 공원의 경우, 공원 이외에도 그것을 둘러싼 여러 상황, 예컨대 주변 환경, 정책, 사회, 정치, 문화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관련 기록물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 특히, 전문 분야로서 조경이 태동하기 이전, 즉 1970년대 이전의 우리나라 공원과 정원의 아카이브는 대체로 설계가가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면도 현존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시의 사회, 정책, 문화 등 관련 자료를 먼저 확보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조경 아카이브 구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다. 사례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아카이브의 구축은 개별적인 단체나 정부 주도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다양한 주체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경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를 조직하거나, 관련 기관과 단체 간에 서로 계획과 진행 사항 등을 공유하여 중복된 주제와 대상을 피하고, 각자 서로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분류 체계를 만들되, 다양한 성격의 조경 프로젝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변형 가능한 체계를 구상해야 한다.

2. 조경 아카이브 구축의 기본 방향

1) 미래를 지향하는 아카이브

조경 아카이브는 과거와 더불어 현재, 그리고 변화할 미래를 아우르는 비전을 가지고 구축해야 한다. 근현대 혹은 그 이전의 정원과 공원뿐만 아니라, 현대 조경 디자인과 조경가, 앞으로 진행될 프로젝트 등 아카이브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고, 주제에 부합하는 구축 방법과 체계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조경 프로젝트의 도면과 관련 자료도 디지털로 생산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 자료의 구축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와 정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대중 친화적 아카이브

아카이브의 개념과 기능은 과거의 기록을 정리, 보관, 관리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대중과 어떻게 만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카이브를 공개할 경우, 가독성이 높은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구성을 고안하여 대중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흥미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실 공간에서도 아카이브를 공개하여 대중과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한다. 조경이 경관과 공간을 공감각적으로 다루는 분야라는 점에서 이에 부합하는 대중 친화적 아카이브의 다채로운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3) 아카이브 주체의 차별화와 네트워크

국내에서 조경 아카이브는 구축된 적이 없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아카이브 범위, 대상, 주제, 성격을 차별화하여 풍부하고 다채롭게 구축해야 한다. 또한, 서로 다른 성격의 아카이브 간의 그리고 관련 기관과의 활발한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직접 자료를 구축하는 작업 못지않게 그와 관련된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소장한 여러 기관 간의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서 조경 아카이브를 구축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초기 단계에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일 것이라 판단된다.

4) 지속 가능한 아카이브

아카이브의 중요한 가치는 지속가능성이다. 구축 초기단계에서부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아카이브 구축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전략을 마련하는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영리단체, 협회, 교육 기관 등의 협업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기관의 안정적인 경제, 행정적인 지원과 다양한 기금 마련이 필수적이다.

IV. 맺음말

아카이브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을 넘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변화 과정을 기록

하여 미래에 가치 있는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국내 조경 공간에 대한 통합적인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인접 분야와 해외 동향을 파악하여 조경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초석을 놓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조경 아카이브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당위성을 확보하고, 조경 아카이브를 실제로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다만, 영미권 외에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의 아카이브 현황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https://www.acc.go.kr/ac_c/library/intro).
2. 김인혜 외(2015) 미래를 위한 네트워크, 그리고 가능성. 공간 2015년 2월: 58-65.
3. 유광흠 외(2009)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구축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4. 최원준(2015) 기록의 그물망: 건축 아카이브의 다원화. 공간 2015년 2월: 52-57.
5. 최은실(2014) 공원이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정리체계 연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성 관련 기록물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6. 한겨레(2018) 8월 17일자.
7. 서울시(2018) 광화문시대를 연다, 시민토론회 자료집.
8. Alessandro Tagliolini Foundation(www.fondazionetagliolini.it).
9. Center for Cultural Landscapes(<https://culturallandscapes.arch.virginia.edu/>).
10. Dumbarton Oaks Garden Archives(<https://www.doaks.org/library-archives/garden-archives>).
11. English Heritage(2014) National Review of Research Priorities for Urban Parks, Designed Landscapes, and Open Spaces.
12. English Oxford Living Dictionaries(<https://en.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archive>).
13. Frederick Law Olmsted Papers(<https://www.loc.gov/collections/frederick-law-olmsted-papers/about-this-collection>).
14. Grandi Giardini Italiani(<http://www.grandigiardini.it/giardini-mappa.php>).
15. Historic England Archive(<http://archive.historicengland.org.uk>).
16. Landscape Institute Archive and Library(https://www.reading.ac.uk/merl/collections/Archives_A_to_Z/merl-SR_LI.aspx).
17. LE:NOTRE Institute(http://ln-institute.org/public_in/about_in_web.php).
18. SAH Archipedia(<https://www.sah.org/publications-and-research/sah-archipedia>).
19. The Cultural Landscape Foundation(<https://tclf.org>).
20. Zalduendo, Ines(2015) 본 디지털(born digital): 21세기 건축 아카이브의 개념 전환. 공간 2015년 2월: 66-71.